

경영지원부
이남희 대리



**산란계 사육마리수 증가로
- 약세권 지속 전망 -**

◆ 동향

사육마리수 증가로 인한 산지난가의 약세는 5월에도 이번 없이 지속되었다. 산란노계 도태 동향으로만 보았을 때 많은 농가에서 생산감축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문제는 병아리 공급 증가로 인한 신계군의 증가폭이 커 도태에 따른 생산감축은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갈수록 계란생산잠재력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에서 할인거래폭까지 감안하면 이미 생산원가를 크게 밀돌고 있음에도 올해 들어 매월 300만수 이상의 병아리가 입식되고 있어 근본적으로 계란과잉생산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 자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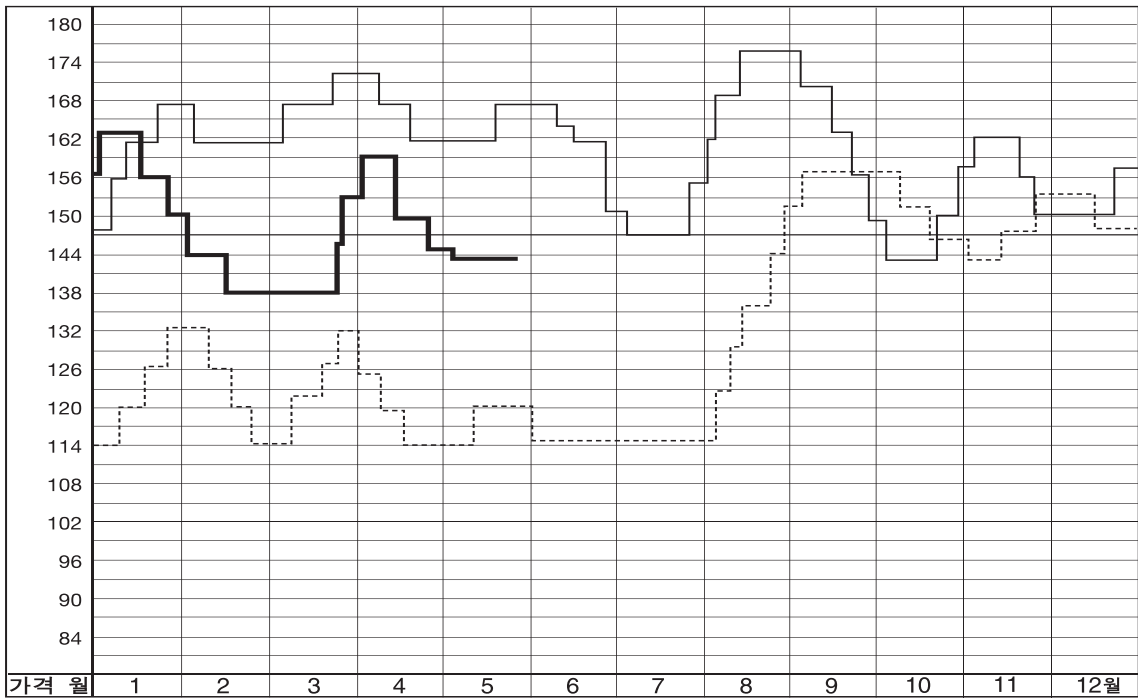
4월 산란종계 입식수는 137,520수로 전년대비 123.6% 증가하였으며, 4월까지의 누계치는 전년동기간대비 21.7% 증가하였다. 같은 달 산란병아리 분양수는 3,254천수로 전년대비 48.2% 증가하였다. 지난해 말부터 병아리 공급량 증가로 시장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종계 입식수 증가는 병아리 과잉공급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한편, 산란노계도 태수는 1/4분기 총 8,363천수로 전년대비 77.1% 증가해 농가의 노계도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1/4분기 가축사육통계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마리수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63,199천수로 나타났다. 6개월 이상 사육계군은 46,907천수로 전년대비 1.4% 감소하였으나, 병아리 공급마리수가 증가하면서 3개월 미만 산란계마리수는 9,794천수로 전년대비 30.4% 증가, 3~6개월령 마리수는 6,498천수로 전년대비 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노계도태가 이루어져도 그 부분을 신계군이 빠르게 채우고 있어 계란생산량 감소는 기대조차 어려운 분위기다.

◆ 전망

6월에도 난가는 반등을 보이기 어렵겠다. 계란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어 계란유통일자를 준수하기 위해 체화된 계란을 급히 처리하기위한 덤핑거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관에 어려움을 느끼는 많은 농가에서 덤핑물량을 늘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미 산지가격이 원가를 크게 밀돌고 있어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기보다는 현 시세를 유지하면서 덤핑물량 증가와 현지 할인 거래폭이 더욱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겠다.

난가상황은 올해 하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매월 병아리 입식수동향만 보아도 계란생산 피크기에 이르는 신계군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원가이하의 시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난가가 호황을 보이면서 계사규모를 늘린 농가가 병아리수요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점도 문제이다. 노계도태 후 신계군을 입식하면서 과잉생산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어 난가상황은 쉽게 나아지기 어렵겠다.



※ 2009.6.22 계란가격 현실화 차원 D/C폭 30원 줄임

特란기준 계란가격(개당)

2010-- 2011 - 2012 -

▶ 병아리·사료·계란생산(잠재력) 및 가격

월	연도	총 계 입식수 (수수)	실용계 생산수 (천수)	사료(천톤)		산란 실용계 (원)	서울 특란가격 (10개원)
				육추	산란		
1	2009	0	2,895	22.6	163.9	1,050	1,553
	2010	34,000	2,570	25.3	169.4	1,100	1,224
	2011	11,000	2,380	27.1	181.0	1,200	1,595
	2012	20,000	3,313	29.8	175.8	1,338	1,589
2	2009	48,300	2,894	20.1	144.5	1,050	1,374
	2010	33,896	2,338	23.9	156.4	1,150	1,246
	2011	0	1,659	22.5	154.6	1,336	1,629
	2012	0	3,127	29.6	163.3	1,300	1,417
3	2009	43,500	3,294	25.1	168.1	994	1,420
	2010	71,396	3,299	25.7	174.8	1,150	1,235
	2011	65,600	2,317	24.1	173.7	1,450	1,676
	2012	10,600	3,296	31.2	177.4	1,272	1,420
4	2009	109,368	2,808	27.2	164.5	917	1,455
	2010	56,000	3,178	28.1	169.4	1,122	1,176
	2011	61,500	2,196	22.0	167.9	1,438	1,670
	2012					1,239	1,528
5	2009	0	2,519	26.5	157.5	850	1,597
	2010	52,000	2,606	27.8	165.7	956	1,179
	2011	128,092	2,959	23.9	171.9	1,450	1,625
	2012						
6	2009	71,300	2,956	26.8	156.2	892	1,448
	2010	0	2,419	29.2	154.8	900	1,152
	2011	85,300	2,958	25.9	163.0	1,450	1,614
	2012						

7	2009	60,500	3,077	29.3	146.7	1,100	1,255
	2010	29,700	3,202	25.9	156.9	928	1,200
	2011	0	2,871	25.3	149.1	1,450	1,495
	2012						
8	2009	60,800	3,154	23.8	156.6	983	1,279
	2010	42,000	2,368	23.3	149.9	950	1,313
	2011	49,080	2,644	28.5	170.0	1,450	1,706
	2012						
9	2009	56,000	2,598	27.1	173.3	1,041	1,386
	2010	45,000	2,600	24.3	162.4	1,000	1,558
	2011	83,200	2,516	28.5	162.9	1,450	1,625
	2012						
10	2009	77,028	3,051	27.0	160.3	1,050	1,248
	2010	80,800	2,822	25.8	165.5	1,050	1,501
	2011	43,500	2,955	28.1	166.2	1,450	1,454
	2012						
11	2009	10,580	3,076	26.0	162.0	1,050	1,167
	2010	43,000	3,134	26.9	170.7	1,133	1,458
	2011	96,692	3,086	27.8	169.3	1,450	1,580
	2012						
12	2009	11,000	2,813	26.5	180.6	1,083	1,212
	2010	47,600	2,962	28.7	184.3	1,172	1,504
	2011	41,600	3,697	30.9	180.8	1,439	1,515
	2012						
계	2009	517,576	35,260	304.6	1,944.4	990	1,361
	2010	538,692	32,761	316.4	1,980.8	1,052	1,308
	2011	665,564	32,238	314.5	2,010.0	1,418	1,599
	2012						

※2008년 1월부터 종계입식수에 브라운너 포함.

※2008년 4월 산란중계는 32,600수 분양되었으나 AI 위험지역에 포함되어 전량 살처분됨.

※2009년 11,12월 실용계 생산수 변경